

소매금융, 동산담보대출... 저축은행, 새 먹거리 발굴 분주

79개사 여·수신 규모 박스권
2년여간 다운사이징 안정권 평가
오토론·미트론 줄줄이 중단
부동산 PF 위축 속 리테일 주목

저축은행이 새 먹거리 찾기에 분주하다. 여수신 규모가 고착화된 가운데 신규 사업 구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취급을 중단한 데다 리테일(소매금융) 취급 환경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여신잔액은 97조1075억원이다. 지난해 7월(96조9415억원) 이후 4개월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저축은행 여신잔액은 지난 2022년 11월을 시작으로 21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신잔액 또한 100조원대 박스권에 진입했다. 지난해 11월 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은 103조3649억원을 나타냈다. 같은해 8월(100조9568억원)을 기점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지난 2023년 1분기 이후 여·수신 규모를 줄이는 등 소극적인 영업행보를 지



Chat GPT가 생성한 '저축은행 직원이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모습' 이미지.

속했다. 2년여간 이뤄진 '다운사이징'이 안정권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저축은행 영업행보가 안정화한 만큼 차기 과제는 새 먹거리 발굴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면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설정 뿐 아니라 유지·관리가 까다롭다. 인력 효율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취급이 부담스럽단 반응이 나온다.

과거 저축은행이 취급하던 대표적인 동산담보대출 상품은 중고차오토론이다. 중고차구매를 지원할 뿐 아니라 차량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내줬다.

그러나 이달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 중 오토론을 취급하는 곳은 5곳(상상인·스마트·키움에스·페퍼·동원저축은행)에 그친다.

감가상각 뿐 아니라 사고, 파손 등의 이유로 담보물의 가치가 훼손될 경우 손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육류담보대출(미트론)' 또한 취급이 전무한 상황이다. 미트론이란 냉동창고에 보관한 육류를 담보로 자금을 내주는 대출상품이다. 과거 2금융권을 중심으로 수 조원 규모의 미트론을 일으키면서 '호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일부 육류유통업자와 냉동창고업자가 중복 대출을 받는 등 대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고위험대출로 분류돼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인력 효율화를 꾀하는 과정에 담보 가치를 평가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 임직원은 9602명이다. 2023년 1분기를 시작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서는 일부 동산담보대출로 소규모 손해가 발생해도 리테일로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신규 상품 개발과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영업 행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리테일 확대가 유일한 돌파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54%로 직전 분기 대비 0.26%포인트(p)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13.03%)의 3분의 1수준이다. 아울러 고금리 장기화에 부동산PF 경쟁매도 난항을 겪고 있다.

장기적인 흐름에선 동산담보대출 취급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능력을 확보하지는 취지다. PF와 리테일만 바라보면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권이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며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이달부터 고객 문자 발송

삼성생명이 고객의 숨은 보장자산을 찾아준다.

삼성생명은 고객의 소중한 보장가치를 지키고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회사가 먼저 안내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성생명은 2월부터 숨은 보험금이 있는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담당 컨설턴트와 함께 고객이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금액이 확정됐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소멸된 계약의 휴면보험금과 신청하지 않은 연금이 해당된다.

흥국생명

효력 상실 보험 간편확인 모바일 부활 청약 서비스

흥국생명은 효력이 상실된 보험의 부활 여부를 하루 만에 확인하고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부활 청약 서비스는 가입자가 콜센터나 설계를 통해 부활 의사를 전달하면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URL)가 제공되고 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한 부활 청약서를 제출해야만 부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흥국생명은 지난해 도입한 '선심사 시스템'을 통해 부활 가능 여부를 더욱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손보

장기요양부터 재활까지 치매간병보험 무배당

한화손해보험은 3일 고객의 장기요양부터 치매와 재활치료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신상품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고객 수요를 반영해 재가 및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보장받는 장기요양급여금 II 담보를 신설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재가급여 항목을 개별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

중증 치매 위주 보장이었던 기존 간병보험과 달리 경증 치매 단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장을 구성했다. ▲알츠하이머치매 진단후특정우울증진단비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진단비를 신설해 경증 치매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울증과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 보장한다.

올해 공사비 더 오른다... 건설사 재무건전성 어찌나

작년 12월 건설공사비지수 130.18
분양가 폭등에 실수요자도 직격탄

건설공사비 상승세가 5년째 이어지면서 건설사와 실수요자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급등한 환율과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올해도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8이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작성한 가공통계로 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 2020년을 100으로 한다.

지수는 2020년 말 102.04에서 2021년 말 117.37, 2022년 말 125.33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2023년 말 128.78, 2024년 말 130.18로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작년 2월 130.05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30을 웃돌았고, 지난해 9월에는 130.3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가 부담에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됐다.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고금리 여파에 인플레이션 등으로 2023년부터 실적 발표 기간마다 추

가 비용 반영에 대한 불안감이 퍼져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23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4분기 영업적자 1조7000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1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2021년 이후 상승한 공사비의 영향이 건설사들의 실적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실적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최소 2025년 상반기까지도 실적 개선세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급등한 공사비는 건설사 뿐만 아니

라 실수요자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분양가는 치솟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부담금을 이유로 진행이 늦춰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2063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1918만원)을 웃돈다. 분양가가 매매가 평균보다 비싸진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3.3㎡당 평균 매매가격 4300만원, 분양가 4820만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금융, MSCI ESG평가 최고등급 획득

3년 만에 'AAA' 등급으로 2단계 ↑
다양한 분야 글로벌 최상위 평가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에서 2024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A등급을 획득한 지 불과 3년 만에 최고 등급인 AAA 등급으로 2단계나 상향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나금융은 이번 평가에서 ▲이사회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 ▲반부패 및 윤리경영 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어린이·외국인 유학생·시니어 손님 등을 위한 금융 교육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 취약계층과의 상생 금융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MSCI AAA 등급 달성은 하나금융그룹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진정성 있는 ESG 경영 활동을 일관성 있게 실천해 온 노력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입증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ESG 선도기업으로서 우리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지난해 민생금융 2801억 지원

당초 2758억 보다 43억 초과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에 집중

우리은행이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2024년 한 해 동안 2801억원의 민생금융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우리은행은 당초 2758억원 규모로 민생금융지원을 계획했으나 43억원 초과된 2801억원을 지원하며 상생금융에 앞장섰다.

공동프로그램 1835억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1만명에 대한 이자 캐시백에 집중됐다.

또한 자율프로그램 966억원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임산부 보험 조회보험료 및 출산축하금 지원 ▲서민금융대출 성실 상환자 캐시백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금융 취약계층 중심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했다.

특히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태아보험을 포함한 임산부보험 무료가입 ▲우리은행 거래고객의 신생아 자녀 출생축하금 5만원 지원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10만명 대상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했다.

우리은행은 올해도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참여로 ▲맞춤형 채무 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김주형 기자 gh471@